

문화광장



양 건 건축학 박사·제주 공공건축가

건축가들의 수상한 전시회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에 빠트린 코로나19의 한 해가 저물고, 2021년의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다.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지만, 매번 반복되는 마무리와 시작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로움이란 위안으로 다가온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 조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내린 지 오래다. 이러한 비상상황은 언택트 시대의 '랜선 일상'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출현시켰다. 디지털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전시와 공연 관람이 우리의 바뀐 일상이 돼버린 것이다. 이처럼 허상의

이미지를 매개로 한 전시와 공연의 제한적인 감상에 우리 모두가 아쉬움을 갖는다. 다만 문화적 행위와 대중과의 교감은 문화예술의 생명성이기에, 어쩔 수 없이 시대 상황에 맞는 문화적 소통 방식에 수긍하게 된다. 그만큼 문화예술은 대중과의 공감에 소중하다. 문화예술로서 건축은 타 분야보다도 사회 현상에 더욱 민감하다. 그런데 실제적 작업이 도시 곳곳에 실현된 건축의 특성 때문인지, 건축가들은 전시를 통한 대중 다가서기에 익숙하지 않았다. 더불어 일반 시민들도 건축을 미술관에서 관람하는 것이 낯설었다. 일례로 2008년 저지 현대미술관에 해외 유명 건축가 초청 전시를 기획했는데, 미술관 측에서 대관에 난색을 표했을 만큼 일반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격세지감이다! 그 10년 후엔 '2018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가 제주도립미술관에서 개최되고, 문예회관

에서는 매해 '제주건축가회의 회원전'이 열리면서 제주 사회에도 건축 전시가 보편화됐다. 그런데 건축 전시를 보면 형식과 내용 면에서 조금 의아한 면이 있다. 작가 개인의 작업과 철학을 대중에게 소개해 문화 소비의 대상으로 광고하거나, 작품을 판매하려는 전시의 일반적인 목적과는 판이하다. 대개의 건축전시는 동시대의 도시 조직과 건축양상을 해부하고 진단하여 그 치유대안을 모색하는, 윤리적이거나 건강한 문화행위로써의 작업을 내놓는다. 건축가 개인에게는 실질적인 대가가 전혀 없는 수상한 전시회를 연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 이런 전시가 제주 시내에서도 열렸다. 제주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제주의 젊은 건축가 5인(권정우, 양현준, 오정현, 백승현, 이창규)에 의해 기획된 '제주 원도심 미래 풍경 상상전'이다. 권정우는 관덕로 지하상가의 미래 활용

을 제안했고, 양현준은 탐동을 부분 복원해 제주 시민의 기억을 소환하는 작업을, 오정현은 구오현고 운동장을 활용해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제안을 내놨다. 또한, 이창규는 산지천의 녹지축을 드러내 세로축의 도시조직을 개선하는 가능성을 도모하고, 백승현은 제주성급 도로와 그 주변을 다루는 입체도시의 조직을 제안했다. 5인의 건축가는 원도심의 잠재성을 찾아내 각자의 대안과 방식으로 제주도민에게 다가선다. 그것으로 문화적 행위의 생명성을 위한 소임은 충분했다. 그런데 이러한 전시회에서 5인의 건축가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얻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풍시대 제주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로서 '실존적 주제'를 경험했을 것이다. 이는 농기 힘든 중독성의 성장적 체험이다. 그래서 팬데믹보다 더한 세상이 올지라도 건축가들의 수상한 전시회는 계속될 것이다.

열린마당

새해농업인 교육 사용 설명서



한 윤 아 제주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코로나19로 인해 모이는 것이 어려워 집에 따라 모여서 진행하던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은 물론 작목별로 이루어지던 교육도 지금은 사실 불투명하다. 그래서 2021년 농업인 교육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선 당초 마을별, 농협별로 이루어지던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은 동영상 활용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지감귤, 만감류, 마늘 등 작목별로 동영상 제작해서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리고 필요한 교재는 마을별로 이사무소에 비치할 것이다. 영농교육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각 마을에 비치된 자료를 개별로 가져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동영상 교육을 들으면 된다. 혹시 동영상 시청이 원활하지 않는 농업인은 기술원이나 기

술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매년 월별로 추진되던 작목별 상설 교육도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영농교육은 집합교육이 가장 좋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강사에게 질문하기도 좋고 같은 작목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영농 교육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접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틀을 깨고 새로운 방법에 도전하는 시기라고 봐야 할 정도다. 영농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아야 하는 농업인도 불편하고 준비하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변해야 한다는 우리 모두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으면 한다.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이 잘 안돼 교육수강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달해야 할 것을 모두 전달하지 못해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다. 올 한 해도 영농교육을 통해 모든 농업인들의 소득이 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뉴스-in

'코로나19 철통방역' 새해 업무 돌입

도·의회 온라인 시무식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온라인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돌입.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도정영상TV를 통해 코로나19 철통방역, 지역경제 활성화, 청정제주 송악산인 실천, 제주형 뉴딜 통한 미래 산업 선도, 4·3특별법 개정, 제2공항 등 갈등현안 해소,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 등을 올해 중점 핵심과제로 선정한 신년 메시지를 전달.

이날 제주도의회도 시무식을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자체 채널을 활용해 좌담수 의장의 신년사로 대체.

오은지기자

제주은행 전략목표 제시

○...제주은행이 2021년 전략목표를 '디지털(Digital)', 제주대표 '강소은행'으로 정해 눈길. 서현주 제주은행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아날로그를 결합해

차별화를 기해 나아가자는 의미로 올해 목표를 정했다"며 "모바일 전자서식·전자명함 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연결한 O2O서비스를 정착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타겟 마케팅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완결성을 강화해 나아가 한다"고 주문.

고대로지자

교육감 '밥상머리 데이트'

○...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무식을 청내 라디오 방송인 '밥상머리 데이트'로 실시.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석문 교육감은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는 비법'을 묻는 질문에 "유전 덕분이다. 어릴 때부터 모발이 검고 째뻍했다. 지금은 많이 빠진 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희망·건강 가득한 2021년이 되길 기원한다"며 "올해도 아이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

송은범기자

사설

코로나19 바뀐 일상, 행정지원 더 모색을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 많은 일상을 바꿔 놓고 있다. 마스크 필수에다 비대면이 일상인 사회로 다가왔고, 식사·경조사 문화 등에도 달라진 모습들이 많아졌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바뀐 일상에 큰 고통을 겪어보니 각종 행정지원 확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심각한 지역경제 분야는 행정 지원에 아주 목말라 있다. 자영업자 상인 노동자에다 취약계층의 한숨과 고통은 깊어만 가는 현실에 이들을 위한 행정 지원은 여전히 역부족이다. 새해엔 '사각지대'를 찾아 더 확대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속에 감염 방지를 위한 '음식물 덜어먹기' 시책과 그에 대한 행정 지원은 눈길을 끈다. 제주시는 최근 올해 모범음식점 지정 277개소 중 음식물을 덜어 먹을 수 있는 기구 제공 등 식사문화개선 과제를 실천하고, 방역관리를 우수하게 해 온 업소 193개소를 '제라진

-안심식당'으로 처음 지정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달라진 식문화 선호 고객 유인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만한 사례다. 시가 '안심식당'에 식문화 개선용 물품 등을 지원하지만 더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은 장례·경조사 문화도 확 바꾸었다. 코로나19 환자가 숨지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이다보니 고인을 보기도 어렵고, 장례식도 못 치르거나 간소하게 치르는 사례들이 많다. 경조사 역시 입장 인원 제한에다 음식물 제공을 막다 보니 계좌이체로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전하는 사례들이 확 늘었다. 유족과 관련 업종에 모색돼야 할 지원대책은 없는지 적극 살펴야 한다. 질병의 역습에 우리 사회 변화의 모습은 필연적이다. 그 과정에 동반되는 '고통'은 행정과 사회구성원간 연대와 배려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월동채소 가격 폭락, 손쓸 대책이 없는가

제주지역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의 걱정이 말이지 아니다. 지난해 긴 자서식·전자명함 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연결한 O2O서비스를 정착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타겟 마케팅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완결성을 강화해 나아가 한다"고 주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주요 도매시장 제주산 월동무(2kg) 가격은 1만4060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2만8490원)보다 50%(1만4430원) 가량 떨어진 것이다. 생산비까지 감안하면 20kg에 2만원대가 돼야 적절한 수준이지만 현재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월동무만이 아니다. 제주시 애월·한림·한경지역 등이 주산지인 양배추(8kg) 가격은 8976원으로 지난해(1만3275원)보다 4299원이 하락했다. 제주시 구좌와 서귀포시

성산이 주산지인 당근(20kg) 가격은 2만9400원으로 전년(4만5750원)보다 1만6350원이나 떨어졌다. 브로콜리(8kg) 가격은 지난 달 2만1417원으로 전년(4만4842원)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월동채소의 가격 하락세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산 월동채소 가격이 폭락하면서 산지 및 유통 문제 개선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지난해 길었던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도내 농가의 피해가 컸는데 월동채소 가격마저도 제값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 문제는 월동채소의 가격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데 있다. 물론 이달 육지부에 강추위가 찾아올 경우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월동채소의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농정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 고
강호철 아버지 친정강공 신정(前 6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께서 서기 2021년 1월 3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1월 5일(화요일)
▶발인일시: 2021년 1월 6일(수요일) 오전 6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아흔아홉골 선영
부인 장정숙
아들 강호철 며느리 흥은희
훈철 정현주
봉철 문기주
딸 강태임 사위 키스클라텐
※ 연락처: 064-717-2900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조화와 부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부 고
정중의(친절공인중개사 대표) 아버지 동래정공 기택(향년 85세)께서 서기 2021년 1월 2일 17시 15분경 수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1월 5일(화요일) 남원2리 의례회관
▶발인일시: 2021년 1월 6일(수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남원읍 공설묘지 955-24
▶장 지: 남원읍 신리리 소재 가족공동묘지
미망인 김숙자
아들 정중의 며느리 현민숙
복익
상익 조임선
딸 정명순 사위 허창진
은순 오종은
※ 연락처: 정중의 010-7245-3378 현민숙 010-6788-3381
정복익 010-9458-0407
정상의 010-4692-7102 조임선 010-9691-3727
정명순 010-3694-6183 허창진 010-3694-6182
정은순 010-4690-3917 오종은 010-2699-1739

부 고
김현식(서귀포 영에이지 대표)·철식(제주생활치료센터장) 어머니 경주김씨 해생(향년 86세)께서 서기 2021년 1월 3일 23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1월 5일(화요일)
▶발인일시: 2021년 1월 6일(수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2분향소
▶장 지: 서귀포추모공원
아들 김현식 며느리 김이자
김철식 김경아
※ 연락처: 김현식 010-2685-6326
김철식 010-6688-9223
김이자 010-2744-2614
김경아 010-2601-7523

용강동
가족모지용 매매
묘지허가 가능
연락처 010-6360-9167 010-7666-231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 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물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빙의·신들림
증세로 고생하시는분
상담환영
전화·대면상담 무료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064)746-0789